

프로야구 감독들 “144경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21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연습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관중 없이 열리고 있다. KBO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정규시즌 개막일을 5월5일로 확정했다. 개막 초반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실시한다.

144경기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에 프로야구 감독들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여름 이후 발생할 기상 변수와 그로 인한 경기력 저하, 부상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지난 21일 서울 잠

실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연습경기에서 앞서 "KBO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앞서 결정된 2020시즌 KBO리그 144경기 원주 방침을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144경기

기상 이변·경기력 저하·부상위험 등 우려 쏟아내

KBO는 '코로나19'에만 포커스...“다시 생각해봐야”

일정은 걱정이 된다. 현장에 있는 감독들은 경기 수가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144경기를 다 치른다면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해야 한다.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미 한 달 이상 시즌이 미뤄졌다. 144경기를 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 다음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경기를 하다보면 올해 그런 운영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김 감독 뿐만 아니다. 최근 영경업 SK 감독도 KBO의 144경기 강행 가능성에 우려를 표현했으며 류중일 LG 감독도 일찌감치 144경기 완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현역 프로야구 감독 최연장자인 류중일 감독을 비롯, 베테랑 감독들이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KBO는 개막일정을 확정 발표하며 144경기를 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 정도 리그 중단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경기 수가 줄 수도 있다"고만 전제했다.

이어 "경기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수가 많다. 사실 오늘 이사회에서도 144경기를 다 치르다가보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줄여나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선수단 내에서 발생할 경우 3주 가량 리그 중단이 불가피하기에 미리부터 일정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했다. KBO는 리그 중단 가능성을 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로만 한정했을 뿐, 한 달 이상 미뤄진 일정, 사라진 휴식

기, 여름 이후 기상변수, 시즌 막판 추위와 체력감소로 인한 경기력 저하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적인 우천취소 등은 특별히, 월요일 경기를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선수단은 사실상 5월5일부터 11월초까지 휴식기도 없이 타이틀 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이다.

김태형 감독은 "장마 변수도 있는데 비가 오면 8시~9시까지 기다리며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팬들도 8시~9시까지 비를 맞으며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들 눈높이가 높아졌다. 현장에서라도 이를 맞춰가고 싶지만 경기 수가 많아지면 힘들다"고 우려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개막 일정이 미뤄진데다 기상 이변이 잦은 국내 현실 상 여름 이후 변수를 고려하지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KBO는 코로나19 변수에만 집중한 채 휴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리그 축소를 고려하려는 분위기다. 김태형 감독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현장의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 KBO는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뉴스1

‘우생순 신화’ 무안 백제고 여자 핸드볼팀 해체되나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단
공식 해체 아닌 뿔 선수 없어
비인기종목·엘리트체육 기피

40년 전통의 전남 무안군 백제고 여자 핸드볼팀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 22일 무안군과 백제고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백제고 핸드볼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팀 해체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뿔 선수가 없어 코칭스태프와 학교 재단은 더 이상 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학생 체벌 문제로 학부모와 코칭스태프 간 갈등 끝에 운영이 중단된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980년 백제여상에서 시작해 일 반고인 바뀐 백제고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여자 핸드볼 명문팀을 보유했다. 졸업 후 초당대와 실업팀인 초당약품으로 진로가 이어지는 등 안정적인 선수생활도 가능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초당약품의 경영난으로 초당대와 초당약품 핸드볼팀이 해체됐고, 백제고만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

마저도 점차 비인기 종목과 엘리트 체육 기피현상으로 수년전부터 선수 수급 문제에 봉착해 왔다.

백제고는 코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부산에서 선수 3명을 데려오고, 골키퍼는 일반 학생을 세우며 가까스로 7명을 맞춰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런 와중에 체벌 문제가 터지면서 부산에서 온 3명의 학생들은 돌아갔고, 팀에 있던 3명의 선수들은 운동을 포기한 상태다.

백제고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 지침으로 학생 선수들의 기숙생활도 금지하면서 선수단 유지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학교 재단측에서도 계속 어렵게 끌고 온 것을 알기에 이쯤하면 그만해도 되지는 않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백제고 핸드볼팀이 문을 닫게 되면 무안중학교, 무안초등학교 핸드볼팀도 연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진학하는 무안중학교 3학년 핸드볼 선수 3명이 갈 곳을 잃었다. 올해 졸업한 학생 선수 1명도 백제고 상황이 좋지 않아 강원도 삼척으로 전학했



다. 무안초등학교 핸드볼팀은 지난해 남녀 2명씩 4명이 꿈나무 국가대표로 선정됐고 무안초·무안중 핸드볼 팀은 각 대회마다 입상할 정도로 정상급 실력을 갖췄다.

전남도교육청 체육교육팀 관계자는 "전남에서 유일한 여자 핸드볼팀인 백제고의 경우 팀 구성이 안돼 전국체전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됐다"며 "대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실업팀으로 진로도 막혀 핸드볼을 하려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핸드볼팀 유지를 위해 학교측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김하성 장래성 풍부...빅리그 도전 나설 것’

美 CBS스포츠, 5월 5일 정규시즌 개막 확정 한국 프로야구 전반 조명

미국이 개막을 확정된 한국 프로야구에 대해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하성(키움)을 주목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22일(한국시간) "5월5일 개막하는 KBO리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오는 5월5일 정규시즌 개막을 확정된 한국 프로야구 전반에 대해 조명하는 기사를 올렸다.

이 매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NPB)의 개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KBO리그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소개를 시작했다.

이어 KBO리그의 구단별 연고지, 포스트시즌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장래성 있는 선수는 김하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하성은 아직 25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로 (지난 시즌) 타율 0.307, 출루율 0.389, 장타율 0.491, 19홈런, 33도루를 기록했다. 다가올 겨울,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다. 스스로도 빅리그 진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이후 한 시즌을 더 소화해 FA 자격을 행사한 뒤 메이저리그 진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CBS스포츠는 KBO리그 최고의 선수로 양의지(NC), 양현종(KIA)을 꼽으며 두 선수의 기록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지난 시즌 KBO리그에서 승리기여도 6을 넘긴 선수는 양의지 외에 3명이 더 있다"며 "김하성과 이번에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한 김광현, 최정(SK)이 그 주인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KBO리그에서 압도적 기량을 과시한 팀은 디펜딩챔피언 두산 베어스이며 "KIA 타이거즈는 역대 11차례 우승을 차지해 한국의 뉴욕 양키스와 같은 팀"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